

월
간

THE KOREAN CHRONIC DISEASE NEWS

포괄적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	3면
건강투자로 미래성장동력 확충	4면
한미 FTA 의료는 왜 협상서 빠졌나	5면
성인질환이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9면
제약산업 발전기금 조성 필요	12면

(사)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www.acdm.or.kr

2007년 4월 25일 [제315호]

복지시대의 침병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李在茂** 소장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소장 李在茂)는 '주민이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행복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李 소장은 "올 9월경 보건소의 신축 이전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료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중심의 찾아가는 포괄적인 서비스로 보건소가 주민들의 손발이 되는 확실한 '주민의 주치의 및 보건 의료 서비스 봉사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0~11면]

국내 최초 고혈압 전문 사이트
www.zanidip.co.kr

제3세대 칼슘 채널 차단제

ZANIDIP

Lercanidipine

 LG생명과학



Prescribers' Confidence
In Its Efficacy & Safety



포괄적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

복지부, 4월부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착수 2차 건강진단 개편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4월부터 생애전환기 연령인 만 40세(1967년생), 66세(1941년생) 해당자는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맞춤형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 및 '건강투자전략'의 핵심과제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각 분야 전문가,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검진항목 및 절차 등에 대한 실시기준을 지난 5일 확정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기존의 획일적인 검사위주의 검진과 달리 생애주기에 적절한 맞춤형



▲변재진보건복지부차관이 포괄적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 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건강진단으로 개편됐다.

또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검진결과상담, 생활습관평가 및 처방 등 2차 건강진단의 개편으로

건강검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생애전환기 1차 건강진단에서는 기존의 1·2차 검진항목을 통합해 성별·연령별 예방효과가 탁월한 필수검진항목이 제공된다.

주요 5대 암 검진이 무료로 제공되며 건강진단을 통해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신장질환, 간질환, B형간염, 빈혈, 폐결핵 등 흉부질환, 골다공증, 우울증 및 치매, 5대 암(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등 주요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중보건수급 대란 온다”

농·어촌 보건소 의료 차질 우려 복지부, 2014년 75% 감소 전망

공중보건의 수급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성 의대생의 꾸준한 증가와 일반 의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등으로 공중보건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7년 뒤인 2014년에는 현재의 25%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 일선 보건소의 심각한 의료 차질로 농어촌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복무가 만료되는 전국의 공보의는 1838명인 데 반해 신규 공보의 자

원은 1580여명으로 25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1663명의 공보의가 복무를 마쳤으나 신규 배치된 공보의는 1513명에 그쳐 150명 감소했으며 올해는 감소 폭이 훨씬 더 커졌다.

이 같이 공보의 자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여성 의대생과 군 병원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지난 2000년대 초 20% 수준이었던 전국 의대의 여대생 비율이 최근 들어 40% 수

준까지 증가했고 군 병원도 계속 늘고 있다.

한해 30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남자 의사가 1600명 수준에 불과하고 군 병원의 증가로 군의관이나 기간이 짧은 대체복무로 돌아서면서 공보의 수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전국의 일반의대 41곳 가운데 20곳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면서 병역을 마친 일반 대학 졸업자들도 입학이 가능해 의학전문대학원이 첫 졸업자를 배출하는 오는 2013년을 전후해 공보의 자원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 맞춤형 건강진단 어떤 내용 담고있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2,000명 전문인력 충원

40세 위, 유방, 간, 자궁경부암 등 무료 검진 66세 신체기능, 치매, 노인청력검사 등 추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소' 개념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해 복지부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2,000명의 전문인력을 충원, 4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약 80만~100만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치위생사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인력'은 만성질환자 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모성 및 노인을 대상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와 종합적인 보건 의료 이용상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연령별로는 만 40세의 경우 '암,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상승하는 시기'로 맞춤형 검진을 위해 중성지방(TG), HDL-콜레스테롤, 크레아티닌(신장기능), B형간염, 우울증 선별검사 등이 추가되며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 4종에 대한 무료 암검진이 실시된다.

만 66세는 '신체기능이 저하되며 낙상,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맞춤형 검진을 위해 만 40세 검진항목에 노인신체기능(근력, 평형성),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장애(치매), 노인청력검사 등이 추가된다.

또한 대장암 등 5종에 대한 무료 암검진이 실시되고, 만 66세 여성은 골밀도 검사 추가 실시된다.

1차 건강진단을 받은 수검자는 누구나 새로운 개념의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질환 판정, 건강위험평가, 생활습관처방)'을 통해 의사와 함께 자신의 건강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2차 건강진단은 1차 건강진단 결과를 종합해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검진결과에 대한 의사 상담을 받게 되며 흡연, 음주, 영양, 운동, 비만 등 각각의 생활습관에 대한 상태를 평

가하고 맞춤식 조언과 적절한 개선 처방을 제공하게 된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실시로 그동안 건강진단 사각지대였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40세) 및 비취학 청소년(만 15~18세) 역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66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4월 10일 대상자의 자택 또는 직장 등으로 건강진단표와 안내문이 발송되면서 시작되며 총 401억원(건강보험재정 396억원, 일반회계 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건강진단 대상자는 총 123만명이며 이중 만 40세, 66세 건강보험대상자가 약 120만명, 만 40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약 2만명, 비취학 청소년(만 15~18세) 약 5,000명 등이 다.

지난해 사무직근로자로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도 해당 연령자는 모두 포함되며, 비취학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쉼터 등을 중심으로 보건소가 건강검진 실시할 계획이다.

1차 건강진단(암 검진포함)은 기존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4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2차 건강진단은 2008년 1월 31일까지 실시된다. 2차 건강진단기관은 기존 검진기관 외에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건·의료기관은 추가될 수 있다.

복지부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실시를 통해 생애주기에 적절한 맞춤형 건강진단이 가능해져 건강에 대한 투자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들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던 만 40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만 15~18세 비취학 청소년도 건강진단의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건강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림

“건강한 생활, 쾌적한 환경-건강을 실천합시다”

제5회 만성질환주간 '2007 건강 걷기 대회'
5월 19일 상암동 월드컵 평화잔디광장

“건강한 생활, 쾌적한 환경 - 건강을 실천합시다” 제5회 만성질환주간 행사 「2007 건강 걷기 대회」가 5월19일 오전 8시30분 상암동 월드컵 평화잔디광장(평화광장)에서 열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가 주최하고, (주)한독약품과 자생한방병원 주관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만성질환주간'과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이 가족과 함께 쾌적하게 조성된 난지도 환경공원을 걸으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참가신청 및 접수

▷참가자격 : 가족단위(장애인 및 유아는 보호자동반)/개인/직장/단체별 누구나 ▷참가비 : 무료 ▷개인 참가방법 : 행사당일 행사장으로 오시

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음 ▷단체 참가방법 : 5월 1일부터 서울시 소재 보건소, 노인복지관, 기업체를 대상으로 20인 이상 참가 시 전화(588-1461~2)로 사전 접수함. ▷단체참가자는 자기단체 홍보용 깃발, 피켓, 유니폼을 입을 수 있음. ▷준비물 : 비옷(우천시 대비), 걷기에 편리한 자유복장 ▷제공물 : 선착순으로 1,000명에게 기념티셔츠 및 모자, 타올, 점심식사 제공 ▷행운권을 추첨하여 참가자 100명에게 각종 건강상품 증정

■ 걷기코스

▷거리: 4.5km ▷코스: 평화공원 집결지→전망대연결보도교→하늘공원 달리기출발지점→난지천공원→하늘공원상행길→하늘공원입구→산책로→하늘공원입구→야외전시장하행길→전망대연결보도교입구 달리기코스종점

의료 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대중광고가 4월 4일부터 대폭 허용되는 대신 반드시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이 2007년 1월 3일 공포되어 4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강투자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보건소·보건지소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복지부, ‘건강투자’ 국민보고대회서 제시

보건복지부는 건강투자에 대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건강투자 정책의 개시를 선포했다.

복지부는 5일 보건의 날 행사를 계기로 「건강투자 전략」 및 「건강투자 BI선포」 통해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개인의 역할,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건강투자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치료보다는 건강 그 자체를 달성하는 것을 국가정책의 주요방향으로 삼고, ▲ 금연·절주 등 생활형태의 개선 ▲ 질병의 조기발견, 자기능력제고 등 질병관리 ▲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 건강유해요인 차단과 건강을 지지하는 환경조성 등 4대 영역에 중



점투자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유 시민 장관은 ‘5천만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본격적인 건강투자 개막을 알리는 ‘건강투자 BI’를 선포하고 이와 관련된 로고와 슬로건, 그리고 국민이 지켜야 할 건강수칙 5가지와 버려야 할 건강수칙 5가지를 발표했다.

【Hi, 5계명】 △Hi 운동! 1주일에 다섯 번 30분간은 운동하세요. △Hi 걸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Hi 칫솔질! 식사 후, 잠자기 전 3분간 양치질 잊지 마세요. △Hi 손씻기! 하루 8번 30초이상 손 씻기로 청결을 유지하세요. △Hi 예방접종! 시기별 예방접종 미리미리 체크하세요

【Bye, 5계명】 △Bye 과음! 술은 주2회, 한번에 2잔 이하만, 더 이상은 안돼요. △Bye 흡연! 4천 여종의 독성화학물질, 담배를 멀리하세요. △Bye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그때그때 푸세요. △Bye 편식! 5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Bye 불규칙한 수면! 하루 6시간 이상 꼭 주무세요.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범위 구체화

복지부, ‘의료법 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이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 및 신고절차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다.

이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오는 4월 28일부터 허용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범위 및 신고절차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대사업의 범위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이음업 및 미용업 △산후조리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운영업, 꽃집, 사진관 △의료소모품을 포함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은행지점 및 안정업소에 대한 영업장 임대사업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같은 부대사업을 하려면 의

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지사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16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 건강투자전략 핵심사업 주요 내용

보건소 지역건강지킴이 역할 강화 지역실정 맞는 전달체계 개편 추진

올해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전략의 핵심사업은 다음과 같다.

▶ 건강투자 핵심사업

① 산모수첩, 의료서비스무상, 산전교육무료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축복스러운 임신, 출산의 순간까지 걱정 없이 얘기만 신경 쓰도록 함 ② 우리사회의 미래의 귀중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수 있도록 무료 예방접종, 만6세가 되면 병원에서 영유아 발달검사, 외래 병원부담 경감, 학교보건 프로그램개발 및 치아홈메우기 등 적극지원 ③ 우리사회의 주

“
만성질환등록관리 모형개발
건강한 노년프로그램 실시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축인 청장년층 당신의 건강한 국력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센터 확충, 만성질환 등록관리 모형 개발 및 확대 추진 ④ 건강한 노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과 영양지원 프로그램 운영,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호스피스제도의 건강보험적용 추진 등 ⑤ 건강은 일상생활의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금연·과음·비만·규칙적인 운동관리 등 건강에 투자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⑥ 작은 병도 조기발견이 주요하므로 생애주기에 따라 건강검진 대폭강화를 위해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질을 평가하고 만 6세, 16세, 40세, 66세에 건강검진 실시하는 등 검진 대폭 강화 ⑦ 정신건강 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권역별 자살위기 대응팀 신설, 정신보건센터 상담제공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 시행 ⑧ 보건소가 건강증진, 질병예방 중심사업, 지역실정에 맞는 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 강화 등이다.

성인병뉴스(www.cdpnews.co.kr)



■ 성인병뉴스는 노령화시대를 맞아 만성질환의 퇴치와 예방에 관한 국내외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고 쉽게 전달합니다.

■ 특히, 국내 어느 사이트에서도 만날 수 없는 **名醫**탐방 코너는 각 분야의 저명한 의사들과 독자 여러분을 연결하여 올바른 건강관리의 지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성인병뉴스는 보건정책 및 학술, 학회, 각 병원소식과 아울러 제약, 의료기기, 건강식품 산업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새로운 갈잡이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성인병 관리의 새로운 길잡이

한미 FTA, “보건의료계 영향 적다”

의료서비스는 개방에서 제외키로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보건 의료분야 협상에서 미국측의 핵심요구사항중 우리 건강보험제도 및 의약정책 관련 사안의 상당부분에 대하여 우리 입장을 지킴으로써 국민들이 우려했던 국민 의료비의 증가나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일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은 마지막까지 핵심쟁점으로 남아있던 신약의 최저가 보장 문제는 우리측의 수용불가 입장을 지켜냈고, 약물경제성평가제도 도입 유보와 물가인상에 따른 약가 연동 조정 등의 미측 요구도 철회시킴으로써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의 훼손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지식재산권(IPR) 분야도 국내 제약업계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하여, 타국에서의 허가절차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 강제실시권 발동 제한 관련 우리측의 불



수용 입장을 지켜 냈고, 자국에서의 허가절차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 및 자료보호는 국내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허가-특허 연계는 미측이 당초 요구한 품목허가 자동정지와 달리 국내적으로 이행가능한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우리측이 요구한 의약품 GMP 및 제네릭 의약품의 상호인정

(MRA) 추진이 합의됨으로써 제약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차관은 “건강보험약가 및 의약정책 관련 미국측 핵심요구사항에 대하여 우리 입장을 지켜냄으로써 우리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이 흔들려 의료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의료는 왜 협상서 빠졌나

“개방해서 얻는 실익 없다” 판단

경제자유구역 통해 국내 진출 가능 미측, 의료시장 개방 매력 못 느껴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교육·의료시장 개방이 처음부터 아예 협상 대상에서 빠져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서비스 개방을 강조했는데도 빠진 것은, 국내 이익단체와 미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정부는 협상 초기 FTA개방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교육·의료·법률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작년 2월 서비스시장 교역장벽이 50% 완화되면 장기적으로 서비스 생산은 3조3000억원, 고용은 7만8000명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특히 교육 개방으로

대미(對美) 유학생이 10%만 감소해도 연간 12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전교조·의료단체 등 이익집단 및 FTA반대 그룹이 반발하자 정부는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이 돌아섰다.

대한개원의협회·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국민의료보험이 무너지고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반발했다.

미국도 의외로 의료 분야에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국내 진출이 열려있는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개방해서 얻는 득

보다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의료 부문까지 개방하면 반미 움직임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양측의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했고, 우리측이 영리의료법인 진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미국도 매력을 못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의사·간호사 등의 전문직 비자쿼터도 어느 순간에 협상 의제에서 사실상 제외됐는데 이는 실제 다른 나라와의 FTA 협정에서는 대부분 전문직 비자쿼터를 인정해왔다는 점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FTA협상 주요 내용

제네릭의약품 약가협상 제도 도입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서비스 제외

▶건강보험약가 및 의약정책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건강보험의 약가와 관련하여 핵심적 사항의 대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관철시켰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협상 결과, 신약 최저가 보장 및 약물경제성 평가 도입 유보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근본 취지가 약화되어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해 미국 측의 요구를 철회시켰고, 물가인상에 따른 약가 연동 조정, 제네릭의약품의 약가협상 제도 도입,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인하폭(20%) 축소 등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였다.

의약품 관련 이슈들의 상호협력 및 논의를 위한 정부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건강보험약가 및 의약정책 관련 미국측 핵심요구사항에 대하여 우리 입장을 지켜냄으로써 우리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이 흔들려 의료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의약품 지식재산권
의약품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분야는 갑작스런 제도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현행 제도수준에서 합의하였으나, 일부 사안은 국내 제약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결과, 우리측은 타국에서의 허가절차로 인한 특허

기간 연장시 실제 특허기간이 3년 정도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강제실시권 발동 제한은 인도적 목적의 제3국 수출길이 막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수용불가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여 우리측 입장을 지켜냈다.

자국에서의 허가절차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 및 자료보호는 현행 국내수준에 큰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의하였다.

다만,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의 연계는 국내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 및 연구개발 의욕 고취 양면을 모두 고려, 미국 측 요구인 30개월 허가 자동정지는 수용하지 않고, 우리측이 국내적으로 이행 가능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당초 우려되었던 미국 측의 의약품 지식재산권 강화요구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합의함으로써 국내 제약업계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의약품 등에 관한 GMP(생산 및 품질관리 기준), GLP(동물독성시험기준) 및 제네릭 의약품 허가의 상호인정(MRA)을 강력히 요구하여 그 인정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는 개방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들이 염려했던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 또는 현행의 건강보험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 도입으로 인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약화되고, 의료의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전혀 없게 되었다.

月刊

등록번호 서울 라-07526(1980. 2. 18 등록/ 2001. 7. 27변경)

발행인 유동준 편집인 유형준 주간 이강찬 편집국장 황보승남 인쇄인 김영길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우편번호 137-06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51-19

총무부 588-1461
편집부 588-1462

팩스 588-1460
mail@acdm.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www.acdm.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무 료 배 포

동아제약 대표이사 부사장에 강정석 전무

동아제약 강정석 전무(강신호 회장 4남)가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임명되어 현 김원배 대표이사 사장과 함께 공동대표 이사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29일, 동아제약은 주주총회 후 곧바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런 배경에 대해 동아제약 측은 “현재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신약개발을 강력하게 촉진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영업 성과를 이루어 하루 빨리 조직의 안정을 되찾고, 시장 리더쉽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에 의견을 모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사회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를 포함한 이사진 전체는 “서로 화합하여 그간의 혼란을 하루 빨리 치유하고, 회사의



〈강정석 부사장〉

안정을 찾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단합하여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 더 좋은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동아제약은 “유충식 부회장은 계속해서 강신호 회장과 함께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 주주총회에서는 양측이 합의한 내용대로 유충식 부회장과 강문석 수석부대표(강신호 회장 차남), 권성원 포천중문의대 교수(사외이사)를 이사로 선임했다.

일양약품, 투명화 위한 윤리경영 선포

일양약품(회장 정도연)은 지난 2일 본사 강당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7기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정도연 회장은 “지난 36기는 꾸준한 제품구조개선 노력을 통하여 글로벌 제약기업의 기반 위에 치료제 중심메이커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한해”라고 전하고 “37기는 변화하는 제약환경과 유기적 조직문화 속에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웨어를 확대하여 영업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재가치에 초점을 맞춘 우수 인력관리에 만전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혁신과 도전의 적극적 실천 ▶철저한 부서별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등 3대 중점 실천과제를 통해 경쟁력 있는 일양약품을 기필코 만들어 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유태숙 사장은 변화된 사고와 행동으로 글로벌 제약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 생산, R&D 등의 실적 및 목표 수립을 위한 철저한 인력관리 및 평가시스템 도입 ▲이익구조, 매출성과분석을 통한 과감한 품목 구조조정으로 원가절감 혁신 ▲정직, 투명한 중장기적 윤리경영 도입 및 위기관리경영 실천” 등 3가지 경영목표를 전격하여, “탁월한 운영력과 고객의 친밀성을 우선시하는 제품 선도력이 집중된 경쟁력 있는 일양약품을 만들어 나가자”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서는 투명경영 실천을 위한 ‘윤리경영 선포식’이 진행되었으며, 임원 승진자에 대한 시상과 우수 부서에 대한 표창 및 부상을 수여했다.

(주)유유, 우수 상공인 표창 받아

(주)유유 유승필 회장이 지난달 27일 충청북도로부터 우수 상공인 표창을 받았다. 이번 우수상공인 표창은 충청북도에서 기업경영 및 국민건강증진, 노사화합 및 남녀고용평등, 국민문화진흥 및 여가생활향상, 장학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민을 위한 활동 등에 공헌한 것을 인정해 수상하게 된 것이다.

유승필 회장은 미 콜롬비아대 국제경영학 박사, 세계 대중약협회 아시아태평양지역 부회장, 한국제약협회이사장을 역임했고 국민훈장 모란장, 동양 약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유유 권성배 사장이 대신 참석 수상했고 <사진> 행사 후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유유 제천공장을 방문해 유유 제천공장 첨단 공장시설 견학했다.

(주)유유는 1941년에 창립해 현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의약품인



치매예방치료제 ‘타나민’, 혈전색전치료제 ‘크리드’, 골다공증 치료제 ‘맥스마빌’, 비타민제제 ‘비나폴로’, ‘유판씨’ 등을 생산 보급하는 제약중견기업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적인 경제지 ‘포브스 아시아’에 ‘아시아 200대 최우수 중견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주)유유는 1959년부터 시작한 안양공장시대를 마치고 ‘State of Art’라는 첨단 Computerized한 제천공장을 짓고 2007년 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중외제약, 한미FTA에도 끄덕 없다

오리지널 제품 2,317억 86.8%에 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업종별 기업별 영향분석이 한창인 가운데 국내 대형제약사 중 하나인 중외제약이 자사의 매출 구조를 나눠서 전격 공개해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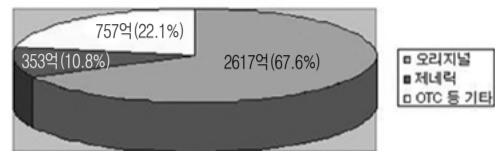
5일, 중외제약은 지난해 △오리지널 의약품 2317억(67.6%) △제네릭 의약품 353억(10.3%) △수출/OTC 등 기타 757억(22.1%) 등 3,427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OTC제품 등을 제외한 전문의약품 비율구성을 보면 오리지널 제품(수액포함)이 2,317억으로 86.8%에 달한다. 이는 제네릭 대비 6배가 넘는 수치다.

이에 대해 중외제약 관계자는 “한미 FTA 타결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는 병원에서의 필수약품 중의 하나인 수액에 대한 매출 포지션이 크고 연구개발로 일관된 오리지널 전문 의약품 비율도 타사 대비 높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라고 말했다. 제약업계에서 매출현황을 오리지널, 제네릭 등으로 분류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발표는 최근 타결된 한미FTA 협상 이후 제약산업 전반에 걸쳐 제기된 시장의 우려에 개별사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매출분포도(오리지널/제네릭/OTC 등 기타)



현재 가나톤(소화관운동개선제), 리바로(고지혈증치료제), 시그마트(협심증치료제) 등 100억 이상의 블록버스트 대열에 오른 다수의 전문 오리지널 의약품 및 최근 발매한 당뇨병치료제 글루팩스트 등을 확보하고 있는 중외제약의 경우, 해외 오리지널 제조사와의 일반적인 라이선싱 계약에 따른 판매가 아닌 대부분 공동 연구개발 및 국내자재 임상 등을 통한 국내 판매의 독점적 권리를 가진 의약품으로 오히려 특허기간 연장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

전체 매출 10.3%에 해당되는 제네릭의 경우도 단순 복제 의약품이 아닌 슈퍼제네릭 의약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2004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차세대 이미페넴은 1995년 특허가 만료됐지만, 물리적 특성과 고난도 합성기술로 인해 현재 상품화된 제네릭의 경우 이미페넴이 유일하며, 중외제약은 이 제품을 거꾸로 일본과 미국,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등 해외 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웰빙 신제품

휴대용 디지털 염도계 'HDS1024'

식품 중 염분량·온도 손쉽게 측정

염분량 수시 점검, 만성질환 예방 기대

가정 등에서 손쉽게 식품중의 염분량과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개발돼 각종 만성질환의 예방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82년에 설립, 20여년간 국내 계량·계측 분야의 선두적인 업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운계기 산업(주)은 최근 식품 중의 염분 농도와 수질 내 용해물질(TDS)을 측정하는 ‘휴대용 TDS/염도계(HDS-1024)’를 개발하여 첨단 센서분야에서의 독보적인 주자로서 발돋움하고 있다.

이러한 염도계는 우리나라와 같이 염분 섭취량이 많아 각종 만성질환자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시로 염분량을 측정, 조절할 수 있음으로 해서 만성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음식물 중의 염분량을 측정은 물론 맛을 일정하게 유지시킴으로서 식단과 고객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휴대용 디지털 염도계 ‘HDS1024’는 수용액 내에 용해되어 있는 염분농도(%)와 온도 그리고 TDS를 전위차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기기로, 식품 중에 녹아있는 염분량과 TDS를 손쉽게 그리고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다.

휴대용 디지털 염도계 ‘HDS1024’의 주요 적용분야는 ▲식품중의 염분농도 측정(산업계) ▲주기적 염분량 측정으로 건강한 생활유지 ▲음식의 맛

(간)을 일정하게 유지 ▲수질의 순수도(오염여부) 측정기능(TDS) 등이다.

■ TDS란?

물속에 녹아있는 무기물질 등(이온량 등) 고형물질의 총량을 의미한다. 증류수는 TDS수치가 0에 가깝고, 물맛이 좋은 적당한 TDS값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약 40~100ppm(mg/L)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 문의(02)891-9666



대한비만학회는 지난 8일 잠실롯데호텔에서 춘계학술심포지엄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연수 강좌를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비만 유전자 검사와 관련 △비만에서 유전자 검사의 의의(김성훈 관동대) △비만에서 유전자검사의 현황 및 정책방향(김경호 보건복지부) 등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며, 소아-성인 비만과 관련된 연구도 집중 발표됐다.

대한비만학회는 지난 8일 잠실롯데호텔에서 춘계학술심포지엄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연수 강좌를 가졌다.



성인 절반이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전체 고혈압 환자 2명 중 1명 환자인지 몰라 복지부,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

우리나라 성인(20세 이상 64세 미만)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혈증, 비만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을 갖고 있는 등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 10명 중 9명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인 5명 중 1명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5, 17면】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및 영양상태를 파악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목적으로 1998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이번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 우리나라 성인 고혈압 환자 2명 중 1명은 본인이 환자인지도 모르고 있으며, 약물 치료로 혈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환자는 전체 환자 3명 중 1명 꼴에 불과했다.

특히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이 90.7%나 됐으며, 옷 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역시 17.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살지만, 평균 삶의 질은 남성보다 낮고,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 건강은 남성보다 더 악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뇌졸중 유병률은 남자 상위층은 12.6%, 여자 상위층은 18.2%인데 반해 남자 하위층은 27.1%, 여자 하위층은 22.8%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청소년기에 형성된 흡연, 음주, 비만 등 건강 위험 행태는 청장년기까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청장년기에 발생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 선형 질환은 노인기까지 이어져, 뇌졸중 및 심근경색증이 노인

기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 청소년 비만은 1998년 6.8%에서 2005년 12.0%로 7년 사이 거의 2배로 늘었고, 성인비만은 1998년 26.3%에서 2005년 31.7%로 증가하는 등 비만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증가하였으며, 자살시도와 자살사망이 급증하여 1995년 인구 10만 명당 11.8명에 불과하던 자살사망률은 2005년에 10만 명당 26.1명으로 늘었다. 성인 남자 흡연율은 한국 61.8%, 미국 20.2%, 프랑스 32.0%, 일본 52.0%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섭취를 보면 우리국민은 채소류, 우유류의 섭취가 부족하고 칼슘의 경우 권장섭취량에 크게 못 미치고 있었는데 섭취를 제한하는 기호 식품(탄산음료, 햄, 소시지 등)의 섭취는 증가하며, 나트륨은 기준량에 비해 4배 가량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 암정보센터 HP로 오세요!

40개 암종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는 암관련 다양한 정보들을 양적, 질적으로 강화하고 이용자들이 유용한 정보를 좀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새로 개편된 웹사이트의 특징은 친근감과 신뢰성을 강조하는 첫 화면을 비롯하여 정보 이용자가 방대한 자료들 중에서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체제를 재분류하고 기존에 없었던 e-book(전자책)이나 메일링 서비스를 통하여 자료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 화면에는 공지사항, 암관련 뉴스, 질문과 답변, 온라인 강좌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재까지 40개 암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존 암관련 컨텐츠를 업데이트하였다.

암종 선택 시 빠르고 쉽게 해당 암종의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체 부위별, 암의 명칭별, 발생부위/계통별로 분류하여 검색기능을 강화하였다.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정기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는 메일링서비스 추가 등 사용자 입장에서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암임상시험 등록 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소재자, 리플렛, 포스터, 보고서, 지침서 등 자료 형태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e-book(전자책) 및 통계청의 보급형 DB를 연동하여 암통계자료도 제공한다.

또한 국가암정보센터는 2005년 6월 개설 이후 이용편의성 측면에서 인터넷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전문 상담요원이 직접 암관련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전화상담서비스(☎1577-8899)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상담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토, 일, 공휴일 제외)로 전화상담 이외의 시간에는 상담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국가암정보센터의 지난 1년(2006년)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인터넷 이용은 총 914,271건, 전화상담 및 이메일 상담은 총 19,031건으로 나타났으며, 전화상담 이용자 중 남자 55.9%, 30대 32.0%, 암환자가 47.0%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꿈의 암치료 시대” 열려

국립암센터 ‘양성자 치료기’ 도입 가동

미국 하버드대 부속병원, MD 앤더슨암센터, 일본 국립암센터 등 세계 28개 기관만 보유하고 있는 ‘양성자치료기’가 국립암센터에 도입되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암치료의 획기적인 장이 열렸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암진료 시설의 미비 등을 이유로 외국에 가서 진료를 받고자 했던 국내의 암 치료 환자를 흡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국민도 세계 최고 수준의 암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립암센터는 ‘양성자치료기’를 이용해 3월 19일 첫 환자 치료를 시작으로 4월 9일부터 본격적인 환자 치료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양성자치료기’는 암조직만을 정확하게 공격하므로 기존 X-선 치료에 비하여 부작용이 적고 치료효과도 뛰어나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존율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2001년도에 양성자치료기를 국립암센터에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지난 5년간 480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시설통사, 치료기 도입, 시험가동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양성자 치료기를 이용하여 암

환자 치료를 시작하여 ‘꿈의 암치료’ 시대를 개막하게 된 것이다.

양성자 치료는 일반적으로 기존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지만, 다른 장기 등으로 퍼지지 않은 상태로 특정 부위에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는 암(고형암)에 치료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폐

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직장암, 두경부암 및 전립선암 등의 치료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방사선 치료로 부작용이 심각한 반면 치료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환자의 경우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효과의 배가를 기대하며, 조기 폐암 및 간암, 전립선암 환자 등은 수술 대신 장기를 보존하면서 양성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양성자 치료는 혈액 암(백혈병, 림프종) 등 전신질환에 속하는 암과 다른 부위에서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전이암 환자에 있어서는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지 않아 치료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한계도 있다.

양성자치료비는 크게 치료계획비와 치료비로 구분되는데 치료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

반적인 암환자의 경우 치료계획비를 포함하여 약 1500~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암환자를 위해 양성자치료비 감면, 사회사업 관련 단체의 지원 알선 등 전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양성자치료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정부는 향후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을 거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현재 총 3기의 치료기중 1기의 회전식 치료기를 가동 중에 있으며, 고정식을 포함한 치료실 3기를 모두 가동하는 10월부터는 월 평균 약 900건, 연간 10,800건의 치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민이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행복한 사회”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소장 李在茂)는 “구민이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행복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건소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여 다양한 보건으로 서비스기능을 보강하게 된다.

이 재무소장은 보건소 신축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료욕구에 부응하여 보건소 이용편을 개선하고 양질의 보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구청사 뒤편에 연건평 1,000여평 규모로 현대화된 보건소가 신축되면 ▲어린이 등 주민들의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과 구강질환의 조기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실 운영 ▲최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 등의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한방진료실 설치 ▲40대 폐경기이후 여성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측정검사 등 다양한 보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구보건소가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가 최근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지원대책이다.

대구시 서구의 경우 2004년 출생아 수가 1,605명이었으나 2006년에는 1,500명으로 100명정도 줄었다.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서구보건소는 저출산 지원대책으로 ▲저소득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출산가정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사업 ▲셋째이후 출생아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 ▲임산부 대상 산전·산후관리 무료 실시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 신생아 의료비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 출산 축하기념 수유쿠션 등의 기념품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지난해 9월부터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민건강증진센터에서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개월 과정으로 질병예방 프로그램 및 노년기 운동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노인대학은 연료하여 내소하지 못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 및 복지관을 직접 찾아가서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체력측정 후 어르신에게 맞는 맞춤형 노인운동을 지도함으로써 주민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방문보건 대상자들에게는 운동지도사 및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질환별 노인운동을 지도하고 있다.



을 지도하고 있다.

이 소장은 “노인 운동프로그램 수료자 중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12주 과정으로 노인 운동지도자를 육성”함으로써 “노인 운동 리더로서 보다 친밀감 있고 효율적인 운동효과를 높이는 등 노인건강증진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 효율적 방역사업 실시

하절기 방역소독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종전의 수동분무소독을 8개동에 대해 특수장비에 의한 「오토바이 방역소독」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다.

「방역소독 민원처리 전담반」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시 신속히 조치하는 등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전개하고 있다.

대형정화조 등 모기유충 서식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모기발생 전 유충을 구제하는 한편 동 중심의 통 단위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취약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전염원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각종 전염병 발생 예방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기존 질병관리위주의 가정방문보건사업에서 한단계 나아가 지역의 의료취약계층 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가

산업체 및 경로당 순회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주1회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3개교를 대상으로 금연시범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직장인을 위해 휴무일 보건소와 금요일 야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매월 4째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직장인과 임산부를 위한 산전·산



올 9월 보건소 신축 보건의료 서비스기능 보강 노인건강 허브보건소 운영 맞춤형 서비스 제공

족 및 가구원 건강문제를 발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예측 가능한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 및 무분별한 약물 복용으로 인한 합병증예방과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는 한편 질적인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 주민 중심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사업으로 흡연자 1천여명을 등록관리하고 있다.

후검사 및 진료와 영유아 예방접종, 일반인을 위한 진료 등을 실시하는 한편 매주 금요일 오후9시까지 야간 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하여 시간적으로 평일 또는 주간에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운동사업은 50인 이상 산업체 3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체근로자 운동지도를 하고 있으며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건강교실 및 여성건강교실을 운영



하고 있다.

운동사업과 더불어 영양상담, 체성분검사, 어린이 영양교실, 건강검사 등 지속적인 영양사업과 산업체 근로자 절주 순회교육 및 4개교 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음주예방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절주 사업을 실시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구강보건사업

저소득층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치아실런트사업과 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정신보건사업

서구정신보건센터와 관내 초등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특히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정신건강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성인병뉴스」(www.cdpnews.co.kr)

「황보국장의 보건소 탐방」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정·소식 기사 보도해 드립니다. e-mail : cdpnews@cdpnews.co.kr FAX : 594-5901

“주민 주치의, 보건의료 서비스 봉사자”

■ 李在茂 소장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고 싶다는 사람, 그래서 후회
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생각으로 일을 한다”면서
“훌륭한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했다.

그래서 직원들은 그를 가리켜 “미련이 남지 않을 정도
로 현장에서 원 없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인생을 한없이 즐길 수는 없으니 주어진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야죠. 물론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인지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상대적으로 시
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나 운동을 할
때, 그리고 일을 할 때 그 순간을 인생 최고의 순간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 재무 소장은 의과대학 졸업 후
외과를 전공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
이 ‘봉직에 대한 열정’ 하나로 1987
년 대구북구보건소장에 부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만 해도 대학에 남거나 개원
하는 것이 보편적인 선택이 아니었
느냐는 질문에 “웬지 이 쪽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고 한다.

부친과 모친은 물론 주위의 가족들 대부분이 의사 집
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똥가 흡입이 된 것처럼 일선에서
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싶다”는 일념뿐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보건소를 찾는 할머니들이 “고맙다”는 인사
를 할 때, 그리고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서로 솔선하여
보건소 일을 해주는 것이 “너무 고맙다”고 했다.

‘성질이 별나고, 엉뚱’한데가 있어 ‘직원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예방의약
담당 신 만섭계장은 “다양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소
장님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기 가계부 쓰
듯 맡은바 직분에 솔선하여 열심히 한다”며 그렇기 때
문에 “성취감이 남 다르다”고 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의 모든 직원들이 진정
으로 구민을 위한 참된 보건의료 봉사자가 되도록 모두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소장은 2년 남짓 지나 정년 퇴임한 후에는 “치매

센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의료봉사활
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주민을 위해 앞만 보고 일해왔던 그런 소중한 경험
들을 “다양성 있게 전개해 보고 싶다”는 것이다.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 온, 그의 또 다른 봉사의 삶
이 사뭇 기대되는 것도 이러한 족적 때문일 것이다.

주말엔 집 근처 산을 오른다는 이 소장은 만나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은 ‘함께 먹기’나 ‘함께 마시기’ 보다
‘함께 살기’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는 깨달음이었다.

-주민 특성에 맞는 질병예방과 치료프로그램이 개
발되어 있는지?

▶주민의 참여와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보건소와 별
도로 지역 내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주민특성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생각

훌륭한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 보람 커”

에 맞는 질병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분야별 개별 건강상담실 운영, 산업장 및 취약계
층에 대한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정부 보건정책에 대한 견해는?

▶전국 대부분의 보건소의 공통적인 문제이겠지만
업무의 양에 비해 조직과 인력이 증원되지 않아 제대
로 된 사업의 추진과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
다. 따라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과 맞춤형 방문보건사
업 등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제반 사업들을 통폐합하는
등 사업 내용을 대폭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용인부를 채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방문보건
사업과 금연클리닉사업 등은 사업의 책임성, 전문성,
계속성, 고용문제, 서비스 등에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
움이 있다. 정부차원에서 행정자치부와 협조하여 사업
전담 부서를 늘리고 직원을 정규화 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만성질환자 예방사업에 대한 소신은?

▶2003년부터 대구광역시 역점시
책사업으로 환자들이 가까운 곳에
서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민간의료기
관과 협력하여 ‘우리동네 고혈압·
당뇨병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의 미래 설계는?

▶금년 9월경 보건소를 신축 이전
하는 것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의 다
양한 의료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대구시의 가장 선진보건소로 자리매김하여 주민 중
심의 찾아가는 포괄적인 서비스로 보건소가 주민들의
손발이 되는 확실한 ‘구민의 주치의 및 보건의료 서비
스 봉사자’가 되도록 하겠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차 국가적 사회문
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환자 주간보
호센터를 금년도부터 준비하여 2008년도에 5억여원을
투입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약력】▷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1977년)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1993년)▷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장(1987년~1993년)▷대구광역시 서구보
건소장(1994년~현재)▷1999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05년 국무총리 표창

황보 승남국장 / hbs5484@hanmail.net
최 훈희기자 / uonlyfor@hanmail.net

대구시 서구보건소 비만관리사업

서구보건소가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비만관리사업이다.

대구시 서구 지역의 비만인구는 약 6
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소장은
“비만으로 인한 유병률, 사
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건소의 주도하에 지역주
민의 요구에 맞는 식습관,
신체활동, 행동양식 등의 일상생활에서
의 행동변화를 시킬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비만클리닉 시범사업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상설 및 야간 비만클리닉실은 물론 사
업장 근로자를 위한 이동비만클리닉실
운영, 비만클리닉대상자 추구관리를 위

체계적인 맞춤형 비만클리닉 시범사업 운영 비만별로 6개월 간 식사처방·운동요법 실시

한 체조교실, 요리교실, 바르게 걷기 교
실, 뱀살 유지하기 자조모임, 비만클리닉
환경조성을 위한 비만 체형관 운영 등 다
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바람직한 건강습관의 생
활화를 유도하여 체중조절에 대한 자신
감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자기건강관리능
력 향상으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의 효
과를 거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구보건소는 울
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하는 비만클리닉사업 시
범보건소로 선정되어 비
만자가 있는 사업장에 직
접 찾아가는 이동 비만클
리닉 운영, 개인의 비만정
도에 따라 6개월 간 식사
처방 및 운동요법을 지도
하고 운동실습도 함께 실
시하는 등 적극적인 비만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

외인성비만·체중감량
광동제약 「아더팩스」

보호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되어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다만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써 복제약의 허가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그 대상품목이 많지 않아 국내 제약사가 입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약산업 발전기금’ 조성 필요

“매년 500억원씩 10년간 기금 조성해야”

한미 FTA 관련 제약협회 요구

한미FTA 협상에 따라 한국제약협회는 정부에 ‘제약산업육성법’ 또는 ‘제약산업발전기금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즉, 제약협회는 농림부는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중이라며 제약업계도 정부재정 및 제약업계 출연으로 매년 500억원씩 10년간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9일 제약협회는 방배동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복지부 관계자와 제약사 사장단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측은 제약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신약개발연구비 지원강화등의 정책적 지원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따른 세부지침의 완화는 정책적 시행문제로 인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은 “국내 제약업계는 지난해 생동성 파문과 포지티브로 당하고 이번에는 한미 FTA에서 또 한번 당했다”며 “한미 FTA에서 타결된 제네릭 상호인증 문제도 결국 GMP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에 제약업계는 현재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이번 FTA 협상 타결로 제약업계가 연 1,000억 정도의 피해가 불가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렇다면 정부가 연 500억 원 정도의 제약산업 발전 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업계 지원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문 부회장은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제약업계는 매년 2,000~3,000억 정도의 피해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는 약가인하를 위해 무리하게 생동성 재평

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동성 재평가 품목을 소화 가능한 년 400여 품목 정도로 조절해 줄 것”과 “특허-허가 연계가 우리측은 10개월을 그리고 미

국 측은 30개월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완전히 타결되지 않은 것 같아 불안하다”며 정확한 정보제공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 전만복 국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제도의 투명성 △의약품 지재권 △국내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대한 진행 결과 등에 대해 보고했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제약협회, 5월 중 CP 선포식 개최

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결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경쟁법(공정거래관련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 2001년 7월 자율준수 규범이 제정·선포된 이후 현재 1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 도입으로 불

공정거래행위 사전 차단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수준을 경감해주는 제도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제약협회의 이번 CP 도입 결정은 공정위가 20개 제약업체에 대해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는 일부 보도가 나가는 등 심상치 않은 기류가 형성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화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한 급격한 제도변화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로 연결되고 결국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지원대책으로 △신약개발연구 활성화를 위한 R&D 자금 지원 확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 개선 △약가 제도 개선에 의한 적정이윤 보장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에 정부의 특별법 제정 지원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조합의 의견을 전달했다.

중소제약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

약품공업협동조합, R&D 자금지원·세제지원 등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R&D 자금 지원 및 세제지원 등의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박재돈 이사장은 지난 9일 한미FTA와 관련하여 복지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R&D자금 지원과 세제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GMP관리제도에 대한 행정규제때문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FTA 처리기간 만이라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달라고 건의했다.

박 이사장은 “제약업계는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보험의약품 등 재제도, 특허의약품 특허연장, 복합제제비 급여조치, 제네릭의약품 가격인하 등 급변하는 제도변

“의약품종 다국적 제약 참여할 수 없다”

자료보호, 추가 부담 발생 없어

복지부, 한·미 FTA 관련 해명

보건복지부는 자료보호와 관련 “한·미 FTA를 통해 국내 규정이 강화되거나 업계 또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미치는 부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품목허가 시 제출된 자료를 최소 5년간 보호하는 제도도 이미 국내에서 시행중인 제도로 현재 식약청에서는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통해 원 개발자가 제출한 자료를 6년간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 보호에는 개량신약인 유사의약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FTA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한 주요 이슈별 쟁점을 요약 소개한다.

▶식약청의 품목허가 심사 기간 관련

품목허가 절차에 소요된 기간에 대해 특허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제도는 이미 국내에서 시행중인 제도다.

식약청 허가 심사시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통상 1.5·2년 소요)에 대하여 특허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특허법 제89조(87년부터 시행)]

따라서 한미 FTA로 인해 새로이 연장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자료보호 5년 관련
의약품 품목허가시 제출된 자료를 최소 5년간 보호하는 제도도 이미 국내에서 시행중인 제도이다.

현재 식약청에서는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통해 원 개발자가 제출한 자료를 6년간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 보호에는 개량신약인 유사의약품까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자료보호와 관련해서 한·미 FTA를 통해 국내 규정이 강화되거나 업계 또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미치는 부분이 없다.

▶독립적 의의신청 기구 관련

기존 약가제도하에도 약가 등 결정사항에 대해 의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기시

행중이다.

다만, 한미 FTA를 통해 이의신청 절차를 객관화하여 원심 결정기관과는 다른 기관에서 검토하게 된다.

동 절차를 통해 원심 결정을 뒤집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며, 원심 결정을 검토하여 원심 결정기관에 환송(remand)할 권한만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 절차 도입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더욱이 06.12월부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고 있어 한미 FTA체결로 인해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미·호주간 FTA 체결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구제절차는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아울러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는 국내 기업에도 합리적 구제절차의 일환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호주간 자유무역협정 발효(05.1) 이후 지금까지 독립적 이의신청이 단 1건만이 제기되고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관련

기본적으로 분과별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협정의 이행상황 및 기타 양국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위원회는 여타 다른 분과에서도 설치하게 된다.

동 위원회는 양국간 통상 이슈에 대해 상호마찰을 피하고 사전에 논의하거나 양국간 의약품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동 위원회는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다.

또한 동 위원회는 정부간 위원회로서 양국 정부 관료만으로 구성되므로 다국적 제약사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미 측 관심사항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측 관심사항(예를 들어, 우리 업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한미간 의약품 MRA 추진 등)이나 국내 업계의 대미 통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로도 활용할 것이다.

부실한 인적 자본, 미래 위한 건강투자 시급

— 국민건강영양조사 심층분석 결과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 개요

- 조사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 조사대상 : 표본으로 추출된 전국 600개 조사구, 12,000 가구
- 조사목적 :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및 영양상태를 파악하여 국가보건사업 우선순위 설정, 건강증진과 질병관리사업 중장기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기반을 마련
- 조사기간 : '05년 4월 - 6월
-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구분	조사내용	조사대상	조사방법
건강면접 및 보건교육 실태조사	· 만성질환이환 · 사고 및 중독 · 활동제한 및 삶의 질 · 의료이용	전인구	면접조사
	· 보건교육실태(흡연, 음주, 운동 등)	만12세 이상	자가기입
검진조사	· 신체계측(신장, 체중, 허리둘레) · 혈압측정 · 임상검사(혈청지질, 혈당, B형 간염 등)	만1세 이상 만10세 이상 만10세 이상	이동검진센터 계측 및 검진
	· 식품섭취조사(식품의 섭취횟수, 섭취량) · 식생활조사(식습관, 외식횟수, 수유 등) · 식품섭취빈도조사	만1세 이상 만1세 이상 만12세 이상	면접조사

■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국민건강 이슈 개요』

국민 건강 이슈

1. 생애단계별 점진적 건강수준 악화
2. 불량한 건강행태
3. 국민다수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4. 급증하는 비만
5. 증가하는 스트레스와 자살
6.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나쁜 구강건강
7.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
8. 건강행태가 불량한 청소년
9. 남성보다 나쁜 폐경기 여성건강
10. 사회 계층간 건강격차 발생

청소년 건강 이슈

1. 더 일찍 담배 피우기 시작
2. 더 일찍 술을 마시기 시작
3. 음주·흡연자의 사회적 일탈 행위 증가
4. 나쁜 식습관과 영양 불균형
5. 급증하는 비만
6. 부족한 신체활동
7. 과도한 스트레스
8. 나쁜 구강건강
9. 남학생보다 더 심각한 여학생 건강행태
10. 사회 계층간 건강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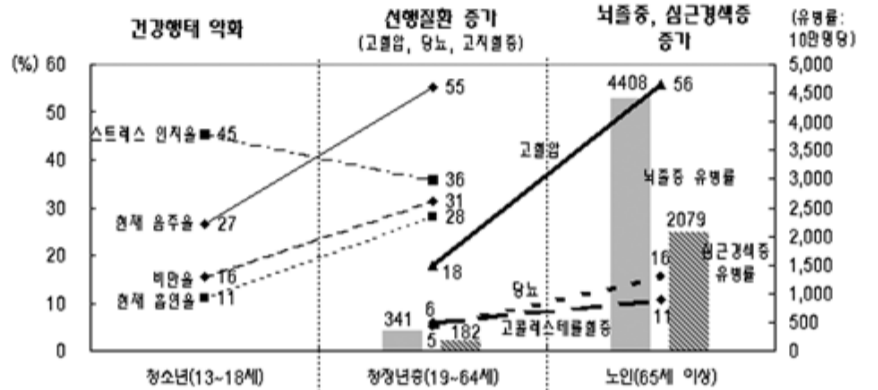
■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상세설명 요약』

주요건강문제	세부내용	근거
1 생애단계별 점진적 건강수준 악화	청소년기에 형성된 흡연, 음주, 비만 등 건강위험행태는 청장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 청장년기에 발생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은 노인기까지 지속 악화 건강위험행태 및 선행질환의 누적된 악화로 청장년층에 드물게 나타나는 뇌졸중 및 심근경색증이 노인기에서는 급증	· 음주율 : 청소년 27% → 청장년 55% · 비만율 : 청소년 16% → 청장년 31% · 고혈압 : 청장년 18% → 노인 56% · 당뇨병 : 청장년 6% → 노인 16% · 뇌졸중 : 청장년 341명/10만명 → 노인층 4,408명/10만명
2 불량한 건강행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건강행태가 불량하고, 청소년이 성인보다 더 심각	· 남자 흡연율 비교 : 한국 61.8%, 미국 20.2%, 프랑스 32.0%, 일본 52.0% · 여자 흡연율 : 성인 5.6%, 청소년(고 2) 13.4% · 여자 음주율 : 성인 39.3%, 청소년(고 2) 41.6%
3 국민다수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성인 국민 절반 이상이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이고, 이중 3/4는 부적절한 치료	·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비만 중 1가지이상 유병 비율 : 장년층(20세 이상 64세 미만) 58.6% · 고혈압 지속치료율 : 22.2%
4 급증하는 비만	에너지 섭취는 늘어 (7년 사이 31kcal), 소아청소년 비만은 지난 7년 사이 2배가 증가하고, 성인비만은 매년 0.75%씩 증가	· 소아청소년비만 : 6.8%('98년) → 12.0%('05년) · 성인비만 : 26.3%('98년) → 31.7%('05년)
5 증가하는 스트레스와 자살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증가하고 자살시도와 사망이 급증	· 자살사망률 : 11.8명/10만명('95년) → 26.1명/10만명('05년)
6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나쁜 구강건강	노인의 구강건강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고, 구강건강 결정시기인 청소년기 구강건강 수준은 악화	· 환자가 인지한 의사 진단치아 우식증 유병률 : 12.8%('98년) → 23.2%('05년) · 환자가 인지한 의사진단 치주질환 유병률 : 3.7%('98년) → 9.8%('05년)
7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	노인 10명당 9명은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청장년에 비해 삶의 질이 현저히 낮으며, 5명 중 1명은 일상생활에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	·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 비율 : 90.7% · 일상생활도움이 필요한 노인비율 : 17.8%
8 건강행태가 불량한 청소년	건강 형성기의 청소년 건강위험행태가 성인 수준에 근접하거나 심각	· <청소년 건강 이대로는 미래 없다>, 3월 29일자 보도내용 참고
9 남성보다 나쁜 폐경기 여성건강	여성이 더 오래 살지만 평균 삶의 질은 남성이 더 높고, 폐경 이후 여성 건강은 남성보다 더 악화	· 삶의 질 지수(EQ-5D index) : 청장년 0.95, 노인 0.75 · 폐경기 이후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남자보다 높음
10 사회 계층간 건강격차 발생	사회 계층간 건강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건강영역에서도 사회 양극화 현상 발생	· 뇌졸중 유병률 : 남자 - 하위층 27.1%, 상위층 12.6% 여자 - 하위층 22.8%, 상위층 18.2% · 허혈성심질환 유병률 남자 - 하위층 20.4%, 상위층 9.6% 여자 - 하위층 22.4%, 상위층 12.8%

■ 우리나라 주요 국민 건강 이슈

문제 1. 생애단계별 점진적 건강수준 악화

- 청소년기에 형성된 흡연, 음주, 비만 등 건강위험행태는 청장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
- 청장년기에 발생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은 노인기까지 지속 악화
- 건강위험행태 및 선행질환의 누적된 악화로 청장년층에 드물게 나타나는 뇌졸중 및 심근경색증이 노인기에서는 급증



※자료원

: 건강행태 - 청소년건강행태조사('0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05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05년)
뇌졸중, 심근경색증 - 심뇌혈관질환 감시체계 구축사업('06년)

문제 2. 불량한 건강행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건강행태가 불량하고, 청소년이 성인보다 더 심각

1. 흡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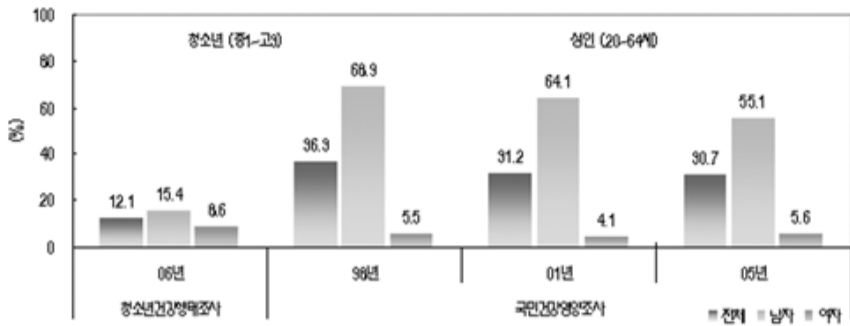
○ 성인의 흡연율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고, 여자의 경

<17면에서 계속>

<15면에서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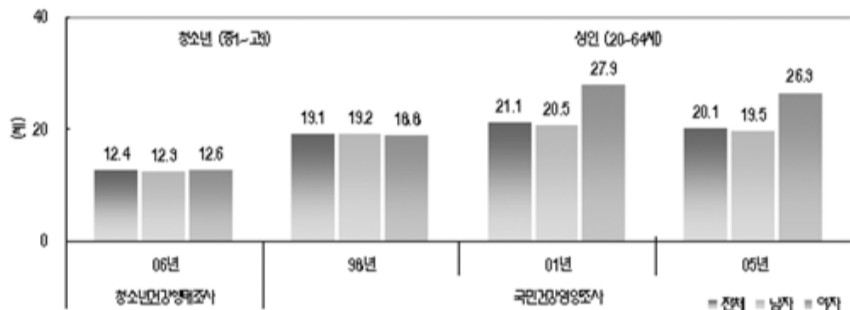
우 청소년의 흡연율이 성인의 2배 수준이다.

※OECD Health data('01년)에 실린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61.8%로, 미국 남성 20.4%, 프랑스 남성 32.0% 등 선진국에 비해 높고, 비교적 흡연율이 높은 일본 남성(52.0%)에 비해서도 높다.



청소년과 성인의 흡연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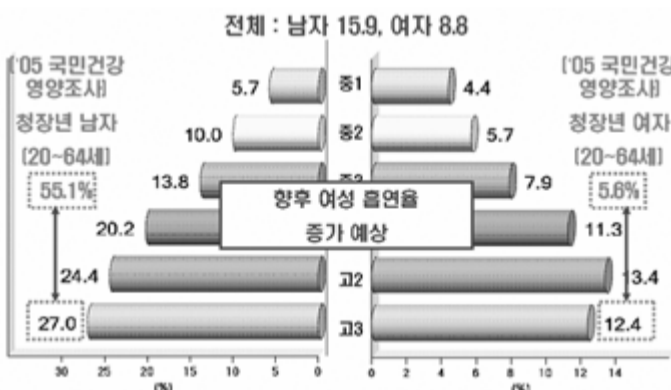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3기('98, '01, '05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0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흡연율 : 평생 동안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으며, 현재 흡연하는 사람의 비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흡연율 : 최근 1달 이내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
 ○ 현재 성인에 비해 청소년의 흡연 시작 연령이 현저히 낮다.



청소년과 성인의 흡연시작 연령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98, '01, '05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0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흡연시작연령 : 담배를 한 개피 다 피운 연령의 평균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흡연시작연령 : 처음으로 담배를 한 두 모금 피워본 연령의 평균

○ 현재 흡연율과 흡연시작연령을 고려할 때, 향후 여자의 흡연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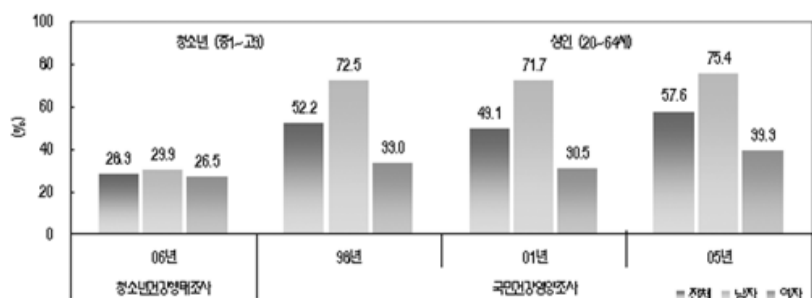


흡연율 향후 전망

※자료원 : 청소년건강행태조사('0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05년)

2. 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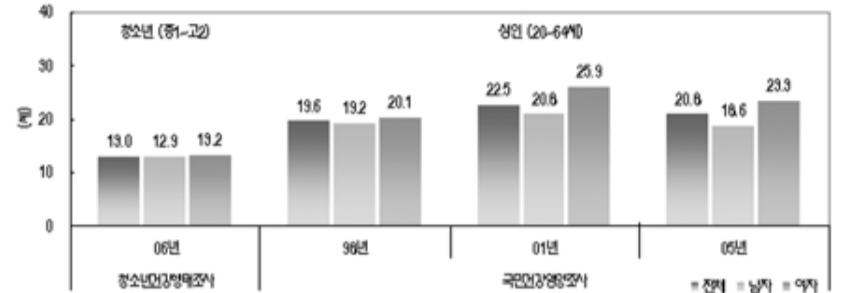
○ 성인의 음주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 청소년의 음주율이 성인과 유사한 수준이다.



청소년과 성인의 음주율 변화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3기('98, '01, '05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06년)
 ※국민건강영양조사('98, 01년) 음주율 : 술을 자주 또는 가끔 마시는 사람의 비율
 ※국민건강영양조사('05년) 음주율 : 최근 1달간 1잔 이상 음주한 사람의 비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음주율 : 최근 1달간 1잔 이상 음주한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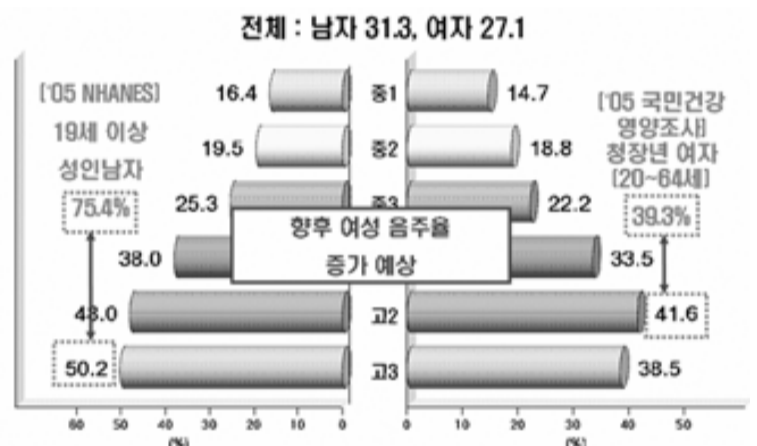
○ 성인보다 청소년의 음주 시작 연령이 낮다.



청소년과 성인의 음주 시작연령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3기('98, '01, '05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0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음주 시작 연령 : 음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음으로 음주한 연령의 평균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음주 시작 연령 : 처음으로 술을 1잔 이상 마신 연령의 평균

○ 현재 음주율과 음주 시작 연령을 고려할 때, 향후 여자 음주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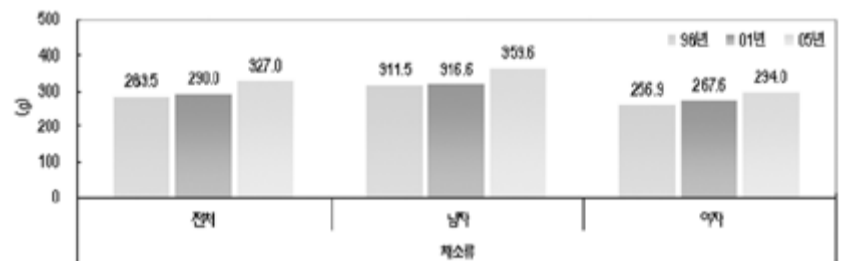


음주율 향후 전망

※자료원 : 청소년건강행태조사('0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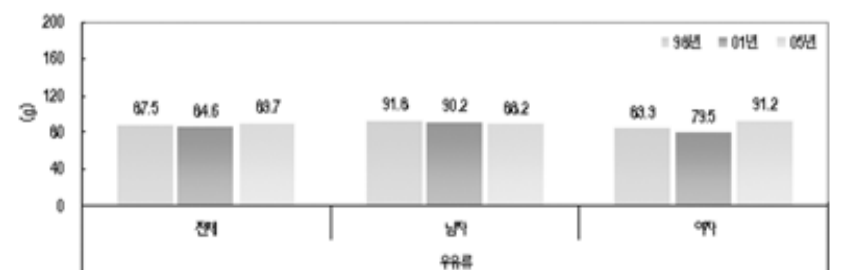
3. 영양

○ 권장 식품은 권장 수준보다 섭취량이 부족하여, 채소류, 우유류의 섭취가 부족하고, 칼슘의 경우 권장섭취량에 크게 못 미친다.



채소류 섭취량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3기('98, '01, '05년)
 ※일본(후생노동성)은 1일 채소를 350g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유류 섭취량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3기('98, '01, '05년)
 ※우유는 하루 1~2개(200~400g) 섭취를 권장한다.

<다음호에 계속>

오직 백성을 위한 충정 다산의 마음을 그대로...

남도 답사 1번지 강진

“이런 곳이라면 나도 몇 달 만 유배당했으면 좋겠네.” 동백나무가 늘어서 붉은 꽃을 피우는 오솔길을 지나 다산초당 천일각에 서서 호수 같은 강진만을 마주하자 펄쩍 떠오르는 생각이었다.

그러다가 과연 하늘같은 입에게서 버림받고 ‘땅 또는 바다의 끝’으로 유배당한 자들의 삶은 어떠했을지 궁금해진다. 지난날의 영화를 잊지 못한 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술과 가무로 지내다 끝내 쓸쓸한 생을 마감한 이도 있었겠고, 성종회복(聖寵回復)이 있었으나 더 이상 권좌에 욕심을 내지 않고, 자연과 인생을 관조하며 마지막까지 ‘굶어 죽어 가는 백성들을 어찌하면 더욱 풍요롭게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뇌로 평생을 바친 자도 있었을 터.

감히 짐작컨대, 망망대해 고독한 귀양지에서 떠나온 입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분노는 인간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지극히 진실 된 감정이라. 그래서일까. 비극의 상황에서도 절망치 않고 수많은 저술로 자신을 멋스럽게 승화시킨 유배자들의 열정은 더욱 빛을 발한다.

다산(茶山), 불후의 저작을 남기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그도 빛나는 열정을 가진 이 중에 하나였다. 학문을 사랑했던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18년 동안 고락을 함께 하였으나 순조가 즉위하자마자 당쟁에 휘말리면서 난신적자로 몰려 경북 장기를 거쳐 강진으로 유배당하였던 다산. 나고 자란 고향은 아니지만 18년의 귀양살이 중 약 10여년을 예서 보냈기에, 정신적 고향이라 일컬어지는 강진 곳곳에서는 그의 흔적들이 산재해있다.

봄이 되면 성숙한 여인의 붉은 순정처럼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동백이 발 길 멈출 곳 없는 나그네 마음에 불을 지피는 백련사의 부도밭 주변의 정취(다산과의 교류가 있었던 혜장선사가 있었던 절)와 다산이 8년 동안 거주하면서 ‘목민심서’, ‘경세지표’ 등의 불후의 저작들을 만들어내었던 다산초당, 그리고 혜장선사와 다산이 함께 오르며 생각을 정리하고, 삶의 의미를 사색하던 오솔길까지...



잠시 여유를 갖고 찬찬히 다산의 흔적을 더듬어보자. 백성들이여, 차속에 세상의 이치가 담겨 있으니... “차를 마시는 백성은 흥하고, 술을 즐겨 마시는 백성은 멸한다.”

다산(茶山)이라는 호에서 알 수 있듯 다산 정약용은 차와 관계가 깊다. 차와의 인연 또한 백련사의 주지스님이었던 혜장선사와의 만남에서 시작된 것이다. 다산이 혜장선사를 처음 만난 것은 강진으로 유배 온 이듬해. 학문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땅히 교류할 사람을 찾지 못했던 다산은 백련사에 갔다가 혜장 선사와 조우하게 된다. 그 당시 혜장선사는 추사 김정희의 스승인 옹방강이 ‘해동의 두보’라고 칭송할 만큼 뛰어난 스님이었고, 불가의 학승이면서도 유교의 경전에 관심이 깊었다.

이런 혜장선사는 다산 정약용에게 용돈도 주고, 귀한 차도 가끔 내려주기도 하였다한다. 그러다가 다산이 다산초당에 기거, 만덕산 고갯길을 넘는 오솔길을 넘나들면서 본격적으로 교류하게 됐다. 그리고는 차를 마시며 정담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함께 차를 마시는 횡수가 늘어나면서, 다산의 다도애(茶道愛)는 더욱 깊어지기 시작했고, 혜장의 유교지식 또한 넓어지기 시작했다.

임은 어디 가고, 저리 서럽게 붉은 눈물 똑똑 흘리는가!

백련사로 들어가는 언덕길에는 기름진 동백나무의 진초록 잎사귀 사이에 붉은 꽃이 나무에 불을 피우듯 송이송이 피어있다. 더욱 흐드러지게 핀 동백꽃을 감상하려면 곧장 절 내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백련사 부도밭 주변으로 가보는 것이 좋다. 이 곳 백련사의 동백은 초봄인 3, 4월경에 꽃을 피우며 집단으로 군락을 이뤄 자생하고 있는 희귀식물로 천연기념물 제 151호. 동국여지승람에서 백련사는 ‘남쪽바다에 임해있고 골짜기 가득히 송백이 울창하며 동백 또한 곁들여져 정취가 사계절을 통해 한결같은 절경’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아름답다. 허니 이 시기에 찾는 이들은 동백꽃불에 휩싸인 산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행운을 얻을 수 있다. 동백나무의 조화에 취하다보면 어느새 백련사에 이른다. 신라 말에 창건된 백련사는 고려 명종 때 80여칸으로 중창되었고, 고려 후기에 8명의 국사를 배출할 정도로 융성했다. 현재는 대웅전, 응진당, 명부전, 칠성각, 요사채 등의 건물이 남아있다.

불교와 유교가, 속세와 해탈이 함께 오르는 숲 속의 오솔길

백련사 안에는 ‘백련다원’이라는 찾집이 있다. 산사의 참 맛을 아는 이라면 이곳에서 ‘차’ 한잔 마시고 감은 극히 당연한 일. 잠시 눈을 감고 그윽한 차향을 음미해보자. 머리를 어지럽히던 생각들을 하나하나 추슬러보는 여유도 생기고, 200여년 전 다산의 생활도 상상케 된다. 다시 길을 떠나자. 다산이 10여년 동안 머물렀던 다산초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백련사 주차장에서 가서 차로 이동해 다산초당 주차장에서 다시 가파른 고갯길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지만, 진정 다산의 흔적을 더듬

유형준이 보여주는
시의 향기

봄 비

하늘이 울먹입니다
바람에 베인 상처
아직은 아려

하늘이 울먹입니다
상처로 흐르다 흘러
증발하고 가까스로 남은
눈물처럼

설날 그믐
그의 집 바로 그 집 앞에서
꼭 삼백 육십 오 일
꿨어앉아 있다
허공 위로 올라갔다던
한 사람의 용서가

바람에 썰려
가늘게 가늘게
식은땀으로 내립니다
아릿한 용서로 내려옵니다.

유형준
시인 · 한림의대 내과교수

온 전신을 봄비 속에 활짝 열어놓는다면, 모든 것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과 내가 서로의 숨결에 몸과 마음을 맡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로 흐르다 흘러, 증발하고 가까스로 남은 눈물이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에서 무한으로 되돌아가는, 그래서 하늘이 울먹인다면 그것으로 마음은 충분히 정화되지 않을까요. 바람에 썰려 아릿한 용서로 내려오는 봄비처럼, 봄비에 전신을 드러내는 소나무처럼, 아릿한 용서가 마음속의 헛된 꿈도 씻어 줄 것입니다. <황보 승남국장>

고자 한다면, 다산과 혜장 선사가 교류를 위해 걸었던 숲속 오솔길을 따라 가는 것이 좋다. 백련사에서 다산초당으로 가는 오솔길은 약800m, 성인의 걸음으로 40분이면 당도할 거리다. 붉은 동백꽃의 물결과 산세의 지저귀, 대나무 숲 소리 들으며 걷노라면 휘파람이 절로 나온다. 홀로 사색하며 걸기에 더 없이 좋은 길인 셈.

오늘, 다산의 마음이 그림다

4월의 봄, 참 어렵다. 온통 어려운 일 뿐이다. 변화 없이 자꾸 반복되는 낮은 정치도 그렇고, 갈수록 꼬여만 가는 서민 경제는 더욱 그렇다. 세상이 이처럼 어지러울 때면 나도 모르게 다산을 찾게 된다. 진정코 백성을 위하는 충정, 위민(爲民)의 마음이 그리워질 때문이리라. 따뜻한 봄 햇살의 배움을 받으며 내려가는 길, 문득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다산과 같은 마음을 지닌 위정자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궁금해졌다.

<한국관광공사 국내온라인마케팅팀 자료제공>

→ 여행 정보

- ▲다산초당 교통편 안내 도로안내 : 강진버스터미널 앞→해남 완도 방면 18번 국도→(2km)→강진군→학명리 추도 3거리(좌회전)→도암 방면 2번 국도→(7km)→다산초당
- 현지교통 : 강진-망호, 송학행 군내버스 이용, 12회 운행/20분 소요(첫차 06:30, 막차 19:15)
- 현지숙박 : 다산촌민박 (061)433-5555, 다산슈퍼민박 432-0098, 만덕슈퍼민박 434-7291, 다산농원민박 432-0096, 알뜰슈퍼민박 434-8487, 송학횃집민박 433-8545.
- ▲백련사 교통편 안내 교통정보 : 광주→니주→영암→성전방향 13번 국도→성전리→강진 방면 2번 국도→강진→해남 방면 18번 국도 2km→다산 초당 방향
- 현지교통 : 강진에서 버스를 탈 경우(백련사, 다산초당 경유 버스) 백련사까지 올라가는데 20-30분 정도가 소요되므로 몸이 불편하신 분은 강진에서 택시이용 요망.
- 숙박 및 음식 : 다산초당, 백련사 쪽에는 다산촌 민박 (061-433-5555) 및 다산농원민박 (061-432-0096) 등이 있고, 강진을 내로 가면 싸고 깨끗한 모텔 등이 많다. 또한 강진은 남도 한정식으로 유명한데 대표적인 곳으로 해태식당(061-434-2486)과 동지식당(061-433-2080)이 있다. 2인분에 6만원.